



지난 7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앞에서 전남대 의대생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1인 파켓시위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의사회 오늘 총파업

광주시의사회가 14일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사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는 14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파업은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되며 참여

동네병원은 광주지역 955곳 중 24%인 233곳이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한다.

전남은 1136개 병원 중 30% 정도가 병원 문을 닫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응급실, 코로나19 연관 격리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

광주시와 전남도는 파업 참여율이 30%를 넘길 경우 진료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불응할 경우 형사 고소하고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광주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의료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병원 설립 등 인프라 구축도 하지 않고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의료계를 악화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파업에 동참하는 대부분의 동네의원들이 여름 휴가철에 맞춰 휴진을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파업 참여율은 높지 않아 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대형병원 전공의·의대생 동참...오후 3시 쫓기대회

광주시 "파업참여 30% 이상일 경우 복귀명령 고려"

여부는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광주지역은 전남대·조선대병원, 중급병원 등 50여곳과 동네의원 포함 3500여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의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전문의 등은 참석하지 않는다.

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

광주시 의사회는 파업과 함께 이날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쫓기대회를 열고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다.

쫓기대회에는 지난 7일 총파업을 벌였던 대학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물난리 복구 한창인데' 광주·전남, 이번엔 폭염특보

광주기상청, 담양·곡성 폭염경보

2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도

내일 최고 34도 안팎 오를 듯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가 한창인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물난리에 이어 이번엔 '두더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광주기상청은 13일 오후 1시40분을 기해 전남 담양·곡성에 폭염경보를 내렸다. 신안 흑산도·홍도를 제외한 광주와 전남 20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유지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최고기온은 담양 봉산·나주 다도 33.2도, 곡성 옥과 33도, 광주 공항·광양 광양읍 32.7도, 순

천·곡성 32.2도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광주·전남에는 최고 612mm(담양)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산사태, 주택·차량 침수, 제방 붕괴, 도로 유실 등으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곳곳에서 수해 복구가 펼쳐지고 있다.

수해 뒤 찾아온 폭염에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두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계면 낮 최고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수해 복구 지역에서는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문대통령, 구례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남부 지방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전북 남원,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총 11개 지역...7일 7곳 첫 지정 후 6일 만에 추가

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조사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었다.

는 지역도 있을 건데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향후 추가 선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전남 "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